



“도박 중독자의 신체의 생물학적 변화와 해결방안”

[글쓰기] & [생물학II] 강의페어링

202021315 김민재 [강의페어링 송하석 교수님 지도

그토록 수많은 감각들이 지나쳤지만
내 영혼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른다.
오로지 초조하게 안달이 나 아직도 더 많은
감각들에 대한 갈망으로 넘친다.
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갈망은 강해진다.
-도스토옙스키

페어링 강의1 – 글쓰기

-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며 배운 효율적으로
중요한 부분 글쓰기와 주석 달기 그리고
참고문헌 작성법 사용

-기말 보고서 “도박 일상화의 현실과
문제점”에서 다른 도박에 대한 심리적이고
사회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에
생물학II의 신경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
도박의 생물학적 원인과 해결책 연구



목적

-도박을 접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도박에서
빠져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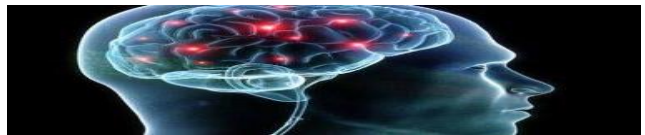
-도박을 할 때 인해, 특히 신경계에서 발생하는
현상에 대한 연구

- 도박 중독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

페어링 강의2 – 생물학II

- 생물학II에서 다룬 32장 신경계를 통해서 도박을
“선택”할 때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
조사

- 도박을 비롯한 모든 선택은 두뇌에서 결정되므로
도박을 할 때 신경계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
알아볼 것이다.



내용 및 전개

- 도박을 할 때 시상하부에서 신경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한다.
- 도파민은 행동 통제, 인지, 자발 행동, 동기 부여, 보상과 처벌, 수면, 감정 조절, 집중, 학습, 기억 등 일상생활과 항상 함께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.
- 도파민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, 특히 이는 시간이 중지된 것 같은 깊은 몰입감과 평온함을 주는 역할을 한다. 그래서 도박을 접한 사람들은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어 깊은 평온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도박 중독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.
- 도파민이 과다분비 될 경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떠서 병적일 정도로 행복감에 취해있는 상태인 조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조증은 슬픈 상황에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. 다른 증상은 환각이나 환청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들리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.
-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한 경우에는 몸이 떨리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파킨스병이 생길 수 있으며 불안감, 우울증, 치매 등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.
- 도박에 빠지게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도파민 호르몬이 심한 수준의 비율로 과다 분비가 되는 현상이기에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과 탄수화물 절제,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통해 과다분비를 억제하여 균형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된다.

결론

-글쓰기 수업 내용에서는 실용적인 부분인 글쓰기 도박 보고서와 생물학II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인 신경계부분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두 과목을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인 도박할 때 신체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토의할 것이다.

-정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도박에 대한 예방을 했지만 중요한 부분인 왜 도박을 하고싶은 욕망이 생기는지,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등 , 신경계 쪽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.